

조선왕조실록 고국 온다

도쿄대 “개교 60주년 서울대에 기증하겠다”

불교계 노력 결실... ‘기증’ 방식엔 반대

한일합병 이후인 1913년 데라우치 조선총독에 의해 도쿄대로 강탈됐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이 7월 경 서울대 규장각으로 반환된다.

도쿄대가 “실록을 서울대로 기증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올 3월 불교계를 중심으로 창단된 ‘조선왕조실록환수추진위원회(공동대표 정병·철안, 이하 환수위)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환수위는 그동안 실록에 대한 자료조사 및 실록의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실록환수를 위해 주일대사관측에 입장도 표명하고 도쿄대와 3차례 걸친 반한 협상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도쿄대가 실록을 반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환수위의 ‘일본의 조선왕조실록 불법유출에 대한 법적 소송’에 대한 강한 압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의 적극적 움직임에 고민

을 거듭하던 도쿄대측은 올해 규장각 설립 230주년과 개교 60주년을 맞은 서울대와 학술교류 형식을 빌려 실록을 서울대 규장각에 ‘기증’하기로 함으로써 강탈 93년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됐다.

이에 대해 환수위는 6월 1일 성명을 통해 “우리 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도쿄대로부터 우리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진심으로 환영할 만 한 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쿄대 측으로부터 실록을 돌려받는 방식을 놓고 불교계와 서울대가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수위 간사 해문 스님은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빼앗아간 자들에게 기증받는 것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며 “서울대는 도쿄대의 제안을 역사적 사실 없이 전격 수용함으로써 국민적 지지와 연대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승리의 영광’을 퇴색시켰

다”고 주장했다. 또 “오대산 사고본은 원래 월정사가 관리를 맡았으며 문화재는 제 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만큼 실록은 서울대가 아닌 월정사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 측은 실록이 국내로 반환되면 당연히 서울대 규장각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 측이 원래 실록이 보관돼 있었던 월정사 사고로의 귀속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제국 말 실록이 오대산 사고에 보관돼 있었지만 1908년 순종의 칙령에 의해 이에 대한 관리권이 모두 규장각에 귀속됐다는 근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6주후 실록이 국내로 돌아오면 법적 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며 실록의 관리 주체는 문화재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대강백의 ‘경학공부’ 맛보시라

월운 스님 능엄학림서 전통방식 수업

8월 13~18일, 스님 15명 대상

동국역경원장이자 봉선사 능엄학림 학장 월운 스님(사진)이 8월 13~18일 봉선사 운하당에서 능엄학림 학계 단기 공개수업을 연다. 경학을 하거나 강사에 뜻을 둔 스님들에게 전통방식의 수업을 알려 후일 강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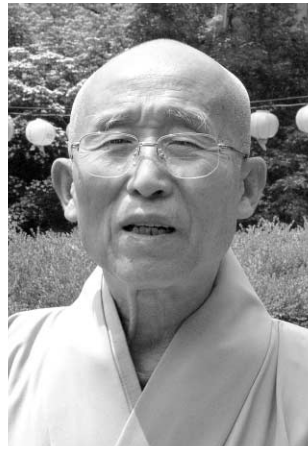
이번 단기 공개 수업에 강사로 나선 월운 스님은 “전통방식으로 경학 공부를 하면 경전 행간의 숨은 의미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수업기간동안 스승인 운허 스님에게 배운 방법 그대로 가르쳐 한국 불교를 제대로 알고 전달할 수 있

는 후학을 양성하는 발판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단발성 기획이벤트가 아니라 계속되는 능엄학림의 수업중 일부다. 교재도 능엄학림에서 사용하는 <화엄경>을 주교재로 ‘사기(私記)’를 주로 보며 공부한다.

사기란 선지식들이 경전을 공부하며 나름대로의 해설 주석을 단 메모장. 하지만 대부분 알아보기 힘든 초서로 필사돼 있어 이해하기 힘들지만 경전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월운 스님은 “이번 수업에서는 또 경전의 주제별 목차를 그림으로 표현한 과도(科圖) 보는법도 가



브릴 예정”이라며 “과도는 어떤 경전을 공부해야할지를 선별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모집인원은 15명이며, 자격은 역경을 공부한 경향이 있거나 뜻을 둔 학인스님이다. 접수는 7월 31일까지. (031)527-4495 김주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김관용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민선 1~3기 구미시장을 지냈으며, 김천직지사 조실이었던 관용 스님으로부터 ‘호연’이라는 불명을 받은 불자다.

3선에 성공한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한용운 스님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을 만큼 불자들에게 친숙한 인물로 조계종 종립대행인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전국에서 유일한 무소속 광역단체장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대 법학과를 나와 9급 공무원을 거쳐 제주시장과 민선 제주도지사에 오른 정몽규로 출신. 당선자 보다 부인 강경선(61)보살의 불심이 더욱 돋독한 불자집안이다.

재임에 성공한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성곡관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김대중 정부시절 공보수석으로 청와대 불자회장을 맡는 등 독실한 신생활동이 남달랐던 것으로 유명하다. 조용수 기자

불자 광역단체장 명단

성명	지역	정당
김진선	강원	한나라당
박효호	대전	한나라당
박준영	전남	민주당
김관용	경북	한나라당
김태환	제주	무소속

불자 기초단체장 명단

성명	지역	지역구	정당
김충용	서울	종로구	한나라당
김효겸	서울	관악구	한나라당
이훈구	서울	양천구	한나라당
박성중	서울	서초구	한나라당
박국제	부산	서구	한나라당
윤덕진	부산	사상구	한나라당
어윤대	부산	영도구	한나라당
임병현	대구	남구	한나라당
이명수	인천	남구	한나라당
조용수	울산	중구	한나라당
강석현	경기	고양	한나라당
최홍수	경기	동두천	한나라당
이진호	강원	양양	한나라당
노승철	강원	춘천	한나라당
한창희	충북	충주	한나라당
황우홍	전남	강진	민주당
박희현	전남	해남	민주당
김휘동	경북	안동	한나라당
김수남	경북	예천	한나라당
이태근	경북	고령	무소속
박보성	경북	김천	한나라당
이정백	경북	상주	한나라당
남유진	경북	구미	한나라당
손이목	경북	영천	한나라당
황철근	경남	마산	한나라당
김한걸	경남	거제	한나라당
이재근	경남	신항	한나라당

“큰 공덕 추모하오니 가호하소서”

조계종, 조종 도의국사 다례재 봉행

조계종 조종 도의국사 다례제가 5월 2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조종 법전 스님은 법계위원장 해정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부처는 너의 마음머리에 있건만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찾으려고 하네. 안으로 큰 보물을 품고서도 부질없이 일생을 보내는 것을 알지 못하네”라고 설했고, 총무원장 지관스님도 “지극한 마음으로 조주의 청다(淸

茶)를 올리고 다시금 조종의 큰 공덕을 추모하오니 자비로 섭수하시고 종단의 앞날을 가호하소서”라고 도의국사를 추모했다.

이날 제3회 도의국사 다례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황인, 동훈, 혜정 스님, 종회위원장 법등 스님, 호계원장 월서 스님을 비롯해 동학사강원 학인, 조계사신도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용수 기자

선거인단 ‘산중고유방식’으로

조계종 종헌준법 기초위

조계종의 종헌준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기초위원회(위원장 향적)가 5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선거법 관련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종회 내 각 종책 모임의 대표 등이 참석한 기초위원회 회의는 총무원장선거법 제3조 선거인의 정의에서 선거인과 선거인단을 구분하고 선거인단을 ‘산중고유방식’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무엇이 산중고유의 방식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인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또 제16조 선거 금지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담은 제31조 공권징지 2년 이하를 공권징지 6월 이상 2년 이하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향적 스님, 덕문, 이일, 장재, 운달 스님 등이 참석했다. 제7차 회의는 6월 12일 열린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6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예방을 받고 “조심을 잃지 말라”고 조언했다.

“민심 잘 살피며 시정 운영을”

지관 스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에 당부

5·3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오세훈 당선자가 6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지관 스님은 “많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심을 잘 살피며 시정을 운영 해나가길 바란다”며 당선을 축하했다.

7월 3일 임기를 시작하는 오 당선자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은 즐거웠지만 막상 기대 이상의 지지율로 당선이 되고보니 두렵기까지 하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꼭 지킬수 있는 것만 공약으로 내건 만큼 실천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관

스님은 “민심은 약자에게 힘을 실어 주다가도 강해지고 교만해 지면 다시 돌아서는 것”이라며 “조심을 잃지 말고 항상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민심을 잘 파악해 시정(市政)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1일에는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을 사임한 김병준 전 청와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했으며, 5월 29일은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고건 전 총리가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사회현안에 대한 불교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글=조용수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화계사 주지에 수경 스님

서울 화계사에 불교환경운동 상임대표 수경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수경 스님은 5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출가 후 첫 주지 소임을 맡게 된 수경 스님의 임기는 6월 2일부터다.

이날 지관 스님은 “수경 스님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격려했고 수경 스님은 “화계사 어른 스님들과 대중들을 잘 모시고 국제선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스님 수행현황 파악

조계종은 법제도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종단 스님들의 수행이력을 6월 16일까지 일제 조사한다. 조계종 총무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스님들의 이동질서 체계 정립을 위해 각 교구본사(직할교구는 총무원)별로 수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종현에 따라 사찰에 독신상주하면서 승단의 청정성과 정체성의 확립하려는 취지로 시행되는 수행현황 파악은 승려분반신고 과정에서 승려의 분반현황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02)2011-1701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노대행 발행·편집인·박혜림 편집국장·위영란 인쇄인·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로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바다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천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서울 돈암동 六祖寺 현웅스님 신심명과 증도가 강설

▶ 일시 : 6월 22일 (음력 5월 27일) 시작, 9월 21일 회향. (3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신심명과, 증도가 강의를 합니다. (교제는 각자지참요, 성철스님 역신심명 증도가) 강의가 끝난 뒤에는 Tea Time과 좌담회를 가지며 묻고 대답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참가 대상은 신심있는 사부대중, 출제가지들은 다 입방할 수 있다.

- 입방비는 15만원입니다.
-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주무시고 갈 수 있습니다.
- 정원제이므로 조기에 입방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번호는 국민은행 : 016-701-04-017-439
- 육조사. Phone : 02)953-5291

* 신심명과, 증도가는 * 3조 승안 스님께서 남겨두고 가신 禪門의 보배입니다. 그리고 증도가는 6조문화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바른 깨침을 확인 받고 가신 영가스님의 경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스님의 공부경험은 후세에 看誦話의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종장들의 선문답이 이 두 스님의 가르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니다.

흔히들 선방에 앉아 있다고 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혼자 하겠습니까. 처음 시작이 잘못되면 다시 고쳐잡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그 결과 방향과 뒷면 이상만 지나서 지나치면 몸과 마음에 병만 남습니다. **오조승 선 공부하려는 이들은 자기마음을 가려놓고 그 마음에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평생 첫노력일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시작 됩니다.

* 선원장 玄雄스님은 * 나이 20세에 구산 선사 문하로 출가 계방선원에서 경전했다. 대중생활을 그리고 산중에서 6년간 홀로 지낸 뒤 공부에 변화를 경험하고 도골 생활을 끝냈다. 20년간 서양에서 간화선을 지도하고 2년 전에 돈암동에 육조사 선원을 개원했다... 조계산 선원장 간화선법회를 시작으로 국내 백고와 법회, 성전 아카데미에서 육조단경, 불교대학원에서 간화선 강의, 불교방송국에서 선 수행 상담을 했다. 지금은 정신과 의사들에게 신심명을 강의하고 있다. *** 저서로는 선문집 “묻지 않는 질문”이 있다.***

봉 원각사 대웅전 원만 낙성 대법회

송광사 광주교당 원각사 대웅전 불사를 부처님의 은덕과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원만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송광사 방장 보성 큰스님을 비롯하여 여러 대덕스님들과 재가 불자들이 모시고 아래의 내용으로 함께하시는 축하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한 기쁜 자리가 되도록 많은 불자들의 수회 참석을 바랍니다.

대웅전 낙성 기념 법회

6월 11일(일) 오후 4시
무여 큰스님(축서사 선원장)

대웅전 낙성 기념 행사

6월 12일(월)

- 니눔장터
- 연꽃사진전
- 사찰음식 전시회 및 조리시연
- 낙성 전야음악회 (이화실내음악단과 합창단)

※ 원각사의 변천과정 사진전과 기념품 증정

송광사광주교당 원각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4가 51
 TEL 062)223-3168 / FAX 062)232-7544